

부산 경제일지

(2023년 5월중)

05.10. ▶ 부산시, 부산 핀테크허브 혁신기업 모집

- 부산시와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는 부산 최대 규모의 금융기술 창업기업 육성기관인 '부산 핀테크허브(U-Space BIFC, S-Space)'에 입주할 혁신기업을 모집
 - 입주기업은 핀테크허브 등으로부터 50~80%의 임대료, 데이터 기반 컨설팅(영업 타겟팅, 사업분석, 전략 등), 일자리, 기업간 협업 기회 등을 지원 받음
 - 개소(19.10월) 이후 78개사가 입주했으며 그 중 25개사는 입주 후 10억 이상 누적 매출을 달성

5.24. ▶ 부산시, 은행들의 소상공인 특별자금 대출 1,200억 원의 이차보전 지원 확대

- 부산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'소상공인 특별자금*'의 ① 보증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② 이차보전 혜택을 강화
 - * '소상공인 특별자금'은 부산소재 소상공인에게 부산, 농협, 하나 은행이 1억원 미만의 자금을 대출해 주고 부산시에서 이자 비용의 일부(2.5%)를 지원하는 정책 금융상품으로 2022년부터 시행 중
- 부산시는 이차보전 혜택을 꾸준히 확대(2022년 0.8~1.7% → 2023년 1.5~1.7% → 2023.5월 2.5% 지원)
 - 이차보전 예산은 긴급추경과 은행들의 보증 재원 출연(부산신용보증재단)을 통해 마련
- 최근 하나은행의 참여로 소상공인 특별자금의 규모를 확대(600억원 → 1,200억원)
 - 기존에는 부산은행과 농협은행이 각 20억원씩 출연하여, 40억원의 보증을 바탕으로 600억원 규모의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계획(23.5.8)
 - 최근 하나은행이 참여*하여 총 100억원(1차 40억 포함)을 출연하였고, 1차 출연금으로 600억원의 자금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이 추가로 가능해짐에 따라 총 1,200억원의 대출에 보증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대(23.5.24)
 - * 하나은행은 부산시, 부산신용보증재단과 '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업무협약'을 체결하고, 3차에 걸쳐 100억원의 특별출연을 통해 1,500억원의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할 예정

05.25. ►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(WCE), 국내 최대 규모로 개최

- 부산시는 5.25~27일중 '기후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번영으로 가는 길'을 주제로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(World Climate Industry Expo, WCE)를 개최
- 부산시는 해당 행사가 기후산업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